

AUTHOR 김재성 (Jae Sung Kim)

TITLE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 (2)  
(A study of Structure in Calvin's Theology)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2 no.2 (November, 1994):379-415

이 범죄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이고, 죄인을 형벌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범죄가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식적 악은 인간이 홀로 행한 행동이고, 무의식적 악은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 이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II)

김재성  
<조직신학·전입강사>

### 제 3 장 칼빈의 휴머니즘 비판

칼빈이 성장기에 입은 휴머니즘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난이 있어왔다. 그의 최초의 저술,『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보면 법학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인문주의의 차원높은 지식이 집약되어 있다. 이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반영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칼빈이 회심한 이후로는 휴머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직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sup>1)</sup> 종교개혁가들이 당

1) 칼빈이 받은 휴머니즘의 영향은 다음의 저술들이 강조하고 있다. Quirinus Breen, *John Calvin : A Study in French Humanism*(Grand Rapids : Eerdmans, 1931). J. Bohatec, *Calvin's Lehre von Staat und Kirche*(Breslau:1937). Idem, *Calvin und das Recht*(Feudingen:1934).

시 학문의 주류이던 인문주의(humanism)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과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어있었으나, 칼빈은 종교개혁과 휴머니즘의 차이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려는 모습을 보여준다.<sup>2)</sup> 이점에 있어서 칼빈은 제 1세대의 종교개혁 신학자들, 루터, 쯔윙글리, 부씨, 멜랑히톤 등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칼빈의 신학에 나타나는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교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청의론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3.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리

휴머니즘 운동은 헬라인들이 지녀왔던 고전적인 지혜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헬라철학의 유산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 지식의 교리가 주로 드러난다고 소개된 책은 시세로의 『자연신론』(*de natura deorum*)이었다.

시세로는 ‘본성, 그 자체가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신에 대한 개념을 심어준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세로의 하나님을 아는 교리 속에서 기독교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종으로 보편적이고, 널리 알려진 자연스러운 현상들 중에 한

칼빈의 회심이 이 휴머니즘의 영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F. Wendel,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s*, tr. Philip Mairet (N. Y. : Harper and Row Inc., 1963), pp.27~45. 김재성, “요한 칼빈의 회심,” 『신학정론』 10권 1호(1992): 171~218.

2) 이점을 잘 밝혀준 귀중한 연구서로는 Charles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 E. J. Brill, 1977)를 꼽을 수 있다.

가지 예로 간주된다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시세로의 말을 좀더 확해쳐보면, 기독교가 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성이나 최종적인 특징은 의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휴머니스트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는데, 기독교가 말하려는 계시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영역이던 고전 철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쯔윙글리는 이점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로,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니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소크라테스나 그밖의 고대 경건한 이교도 철학자들 모두 다 그들의 학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과 같은 길에 도달하였다고 보았다.<sup>3)</sup>

이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현저히 다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1559년 최종판, 제 1장에서 5장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우 주의 깊이 비판하고 있다. 얼른 보기에는 비슷하여도, 칼빈과 고전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근거에서 출발하여, 분명히 다른 과정과 결론으로 끝맺고 있다.<sup>4)</sup>

3) Zwingli,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 ed. Samuel Macauley Jackson and Clarence Nevin Heller (1929; Durham: N. C.: The Labyrinth Press, 1981), pp. 59~75.

여기서 쯔윙글리는 기독교와 고전 철학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차이를 전혀 두지않고 있다.

특히,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쯔윙글리는 시세로의 『자연신론』과 거의 같은 논자의 신지식을 폄고 있다.

4) E. Grislis, “Calvin’s Use of Cicero in the Institutes I:1~5, A Case Study in Theological Method,”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2(1971): 5~37.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81~174. 김재성,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I),” 『신학정론』 제 11권 2호(1993): 428~39.

첫째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인 지식을 거부하였다. 휴머니즘은 참된 지식 그 자체를 바로 규정해주기 보다는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주는 정도라고 보았다.

둘째로, 시세로의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인 지식 대한 강조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부분적 내용과 정 반대되는 성격들을 가지고 도리어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이런 자연적인 지식을 중단하고, 인간이 먼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는 보다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칼빈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은 첫 걸음마 정도서, 이는 결국 계시 가운데서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세로에 대한 비판을 칼빈이 서두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대의 독자들이 고대 헬라철학과 로마의 문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학문 경향에 따라서 독자들이 휴머니스트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것도 감안하여, 기독교와 고대 철학의 상호 이해가 가능한 초입 단계를 설명하여 주고, 보다 궁극적인 것은 기독교만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옹호하려는 신학적 전제가 숨어 있었다. 칼빈이 이처럼 시세로를 사용하여 휴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었던 자연주의적 경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 3.2. 칭의의 교리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칭의론에서도 칼빈은 역시 휴머니스트들의 견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비판하였다. 처음 이 교리가 세계 기독신자들의 시선에 관심을 끌게 된 곳은 빗텐부르그였으나, 마틴 루터의 주장은 점차 휴머니스트들의 강조점과 뒤섞이게 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버렸다. 콤윙글리는 인간의 칭의가 각 개인의 도덕적인 중생(moral regeneration)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조건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부서의 경우도 루터의 신학에다가 성화의 일부를 넣으므로써 변형된 강조점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칭의란 인간의 도덕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인적이라는 휴머니스트들의 칭의론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sup>5)</sup>

칼빈은 휴머니스트들의 강조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은 정리하여 『기독교강요』 1559년 최종판에 다시 한번 칭의의 교리를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연결시키므로써, 인간의 공로가 인정받는다는 휴머니즘의 사상을 배제하고, 바른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였다.

5) Alister E. McGrath, "Humanist Elements in the Early Reformed Doctrine of Justification,"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73 (1982): 5~20.

## 제 4 장 신학의 원천 : 성경

### 4.1. 성경의 권위

칼빈이 개혁주의에 영향을 받게 된 16세기 초엽은 최종의 권위로서 교황이나 교회가 아니요 성경이라는 가르침이 새롭게 강조되던 시대였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혼연히 일치된 견해를 발표하였으니, “오직 성경으로만”(sola scriptura)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가르치는 직분(magisterium)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정리와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루터의 경우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높이 인정하면서도,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시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강조하려는 신학의 구조 때문에, 신 구약 66권 중에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쯔윙글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권위를 인정하고 그 외의 어떤 전제도 부정하였다. 마틴 부서의 경우,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여 철저히 로마 교회의 권세는 성경의 권위에 비하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일시하였다. 혹자는 칼빈이 요한 계시록과 요한 2서, 3서, 구약의 몇권의 역사서에 대한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만일 어느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건전한 교리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라도 바르게 이해하기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sup>6)</sup>

뿐만 아니라, 어째서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권위가 교회의 권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져야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 4.2. 성경의 영감

칼빈의 성경관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신학의 유일한 원천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함으로서 참 진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sup>7)</sup> 당시의 학문경향으로 볼 때, 처음에 칼빈은 고대 교부들의 신학적인 저술들을 라틴어로 탐독하였고 인문과학자의 방법을 따라서, 태도로 마치 법조문을 해석하듯이 교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성경의 뜻풀이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회심이후에 칼빈은 이런 휴머니즘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 좀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자비하므로써

6)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s*(Grand Rapids : Eerdmans, 1957), pp. 96~116.

7)Jackson H. Forstman, *Word and Spirit: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s*(Edinburgh : Oliver and Boyd, 1953).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였다는 영감에 관한 확신이다. 칼빈은 성경의 기록자들인 사도들이야말로 성령님의 확실하고도 순수한 비서관들 (les notaires jurez du Sainct Esprit-autentiques) 이었다고 보았다. 칼빈은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이들 모두가 “성령님의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어놓은 것” (as dictated by the Holy Spirit)으로 주저없이 용납하였다. 이 구절 때문에 칼빈이 “성경의 축자영감설” 혹은 “기계적 영감론” (a mechanical and verbal theory of inspiration)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일반론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칼빈이 “받아적었다”는 말을 할때는 마치 노예와 같이 저자의 특성이 감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저자들의 시대적 경험과 한계를 허용하시고 그 조건하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알고계신다. 하나님은 이들의 배면에서 성령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나간다.<sup>8)</sup>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했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충만하게 알려졌다. 특히 칼빈은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저자들과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리차드 뮐러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도록 도출해내는 변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지혜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8)Inst. I.vii.3,4,5.

성경의 기록자들의 근본 자료이자 원천으로 사용되도록 성령님께서 명상케 하였다는 계시론, 혹은 증거론을 채택하고 있다.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지혜가 함께 협력적으로 성경 기록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sup>9)</sup>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기록들은 오류가 없는 참된 교리임을 믿었다.<sup>10)</sup> 존 머레이 교수의 칼빈의 성경관에 대한 연구로 더욱 잘 뒷바침된바 있다. “성경은 문서이며, 인간 기록자들이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꺼이 문자적 형태를 입으시도록 하신 것이다.”<sup>11)</sup> 성경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며 전포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교회의 회의나 고위 성직자인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될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인 성경이 최종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

### 4.3. 성경적 신학

신약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자. 사도들의 기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신학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9)Richard A. Muller, “The Foundation of Calvin’s Theology: Scripture as Revealing God’s Word,” *The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4 (1979):19.

10)신복윤,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신학사상」(서울:성광문화사, 1993), pp. 35~51.

11)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 Baker, 1960), p.17.

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되었던 어떤 것들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교리에 대해 높은 찬사가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비록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은 인간에 불과하였지만, 성령님이 교시인 것이다.<sup>12)</sup>

의심할 여지 없이 칼빈은 성경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였다. 칼빈신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얻은 결과로 그는 일생동안 어떤 종교개혁자들보다도 더 탁월한 신구약성경 지식을 구비하게 되었고, 전체를 페뚫어 볼 수 있는 균형잡힌 안목을 갖게되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의 원천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사로잡힌 신학의 감화력을 넣게 만들었다. 물론 교부들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과 지식을 갖게 되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성경의 해석작업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설교와 강의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였다. 전문 속기사가 이를 기록하므로서, 많은 저작들이 출판되었고 오늘날까지 거듭하여 번역, 간행되고 있을 만큼 생명력 있는 신학을 만들어냈다. 이는 그의 주도면밀하고도 근면한 성경적 신학이 갖는 위대한 영향력 때문이다.<sup>13)</sup>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만, 신학의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정리하려는 성경적 신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들은 오직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수세기를 거쳐서 보전되다가 우리에게 물려진 것이다. 오직 성경의 도움

12) Calvin, *Commentary on I Peter*, I:11.

13) Wendel, *Calvin*, p. 123.

과 빛에 의해서 우리는 주변의 자연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추게 되며, 어둡고 허약한 눈을 열어서 사물을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교사이자 안내자인 성경에 의해서만, 우리의 관심 밖으로 놓쳐버리기 쉬운 것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며, 이것들을 확실히 붙잡도록 마음을 강화시키신다. 마치 우리의 침침한 눈을 잘 보이도록 도와주시는 것과 같다.<sup>14)</sup>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지금 살아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sup>15)</sup>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인 시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시 했다는 칼빈의 성경관을 상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를 해석하면서 되살려냈는가를 살펴보자.

## 제 5 장 성경 해석의 방법론

칼빈의 신학의 구조적 특성을 찾아보면 성경해석 방법론의 특이

14)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tr. John King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argument”. *Institutes*, I.xiv.1: “In short, let us remember that the invisible God, whose wisdom, power, and righteousness are incomprehensible, sets before us Moses's history as a mirror in which his living likeness glows. For just as eyes, when dimmed with age or weakness or by some other defect, unless aided by spectacles, discern nothing distinctly; so, such is our feebleness, unless Scripture guides us in seeking God, we are immediately confused.”

15) Inst. I.vii.1.

성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본문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 (the literal historical sense of the text)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였다. 이점은 요한 칼빈이 개혁신학의 발전에 남긴 지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 뷔서 교수는 이런 성경해석의 방법론은 “기독교 강요 만이 아니라 그의 신약과 구약 주석에서도 같은 면모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sup>16)</sup>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칼빈의 성경해석 방법론상의 형식적인 특징만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칼빈의 해석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원리들은 이 논문의 제한된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다른 기회에 살펴볼 것이다.

### 5.1. 명료성과 간결성의 원리

칼빈의 성경해석의 원리를 짐작하는 하나의 힌트는 그의 기독교 강요(1559)의 서문 “독자들에게” 속에서 일부 나타난다. 칼빈이 바른 성경해석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후보생들로 하여금 신학 수업을 통해 잘 준비하고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아무런 거리끼는 것이 없이 손쉽게 접근하며,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잘 종합하였고 질서있게 정리하였고, 올바르게 파악하기를 원하는

16) F. Büscher, “Bullinger as Calvin’s Model in Biblical Exposition: An Examination of Calvin’s Preface to the Epistle to the Romans,” in *In Honour of John Calvin, 1509~1564*, pp. 64~65.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특별하게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줄 것이며, 그 내용과 추구하는 목적과를 연결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방식이 잘 준비되어진다면 나는 성경의 해석서들을 출판하고자 한다. 나는 이를 간결하게 하려고 항상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긴 교리적 토론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에 따라서, 경건한 독자는 엄청나 괴로움과 지루함으로부터 놓임을 얻을 것이며, 이 책의 지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도록 준비될 것이다.<sup>17)</sup>

위의 서문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방식이 매우 간단하지만 힘축적으로 들어있다. 즉, 칼빈은 긴 논쟁을 피하고,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이 당대의 많은 신학서적과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개발한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방법론이요, 그의 주석의 방식이었다.

칼빈의 주석방법을 체계화한 최초의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파커 교수였다.<sup>18)</sup> 그 후로 칼빈의 주석방법은 “간단”(brevitas)하고, “명료”(facilitas)하다는 두 가지로 대별되어졌다.<sup>19)</sup> 이제는 거

17) Joannis Calvin, *Opera Selecta*, ed. P. Barth, G. Niesel. vol. III(Kaiser : 1957), p. 6: “… sacrae Theologiae candidatos ad divini verbi lectionem ita praeparare et instruere … siquas posthac Scripturae enarrationes edidero, quia non necesse habebo de dogmatibus longas disputationes instituere, et in locos communes evagari : eas compendio semper astringam.”

18) T. H. 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 Eerdmans, 1971).

19) Ricard C.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의 대부분의 칼빈 학자들이 이 방법론에 동의하고 있다.<sup>20)</sup>

칼빈이 이런 주석방법론을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그의 로마서 주석의 서론 중에, 1539년 10월 18일자로된 시몬 그리네우스(Symon Grynaeus)에게 보내는 헌사의 일부에서 였다. 여기서 칼빈은 그리네우스와 함께 3년 전에 만났을 때, 해석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명료한 간결성”(lucid brevity) 이라는데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을 상기하고 있다.<sup>21)</sup> 칼빈의 의도는 성경의 각 부분과 상응하는 바른 의미를 짧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데 있었다. 무작정 길게 늘어놓는 설명으로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루터의 창세기 주석은 칼빈의 것보다도 무려 여덟 배에 해당하고 있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핵심을 찾기가 무척 힘이 든다.

위의 두 가지 해석방법은 지속적으로 기독교강요의 개정판에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모든 종교적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합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두어야만 될 일이다. 우리는  
겸손과 절제라는 오직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sup>22)</sup>

*Journal 47* (1985): 3.

20) Warfield, Parker, Battles, Kraus, Haroutonia Fuhrman, Walchenbach, Julicher 등의 칼빈 연구가들의 논문에서 이같은 언급을 찾을 수 있다.

2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Romans*, tr. John Owen, p.xxiii, "The Epistle Dedicatory."

22) Inst., Ixiv.4. 여기서 칼빈의 성경주석 방법과 『기독교강요』의 주석방법이 다르다는 Donald McKim 박사의 해석을 참고로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주석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제별로 뮤여

칼빈이 말하는 단순성(facilitas: simplicity)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이해되는 것”을 뜻한다.<sup>23)</sup> 마치 국민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학문이 많지 않은 농부들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칼빈은 성경의 풍유적 해석(allegorical exegesis) 방법을 거부하였다. 이는 주로 성경의 사실적 내용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이다. 칼빈은 평이하고, 자연스럽고, 진실하며, 문자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힘썼던 것이다.

## 5.2. 바쁜 목회자들을 위한 해설서

칼빈은 다른 성경해석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한 본문의 자연스럽고, 분명한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특히 바쁜 목회자들이 읽고 바른 의미를 파악하는데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함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무조건 짧은 것만을 좋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칼빈은 멜랑히톤(Melanchthon)의 『조직신학』(Loci Communes)이 지나치도록 간단하여 중요한 주제마저 건너뛰어버렸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필요

진 체계 속에서 진술하는 『기독교강요』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해석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Donald McKim, "Calvin's View of Scripture,"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Grand Rapids : Baker, 1984), p. 68, n. 71. 그러나 필자는 칼빈이 사용한 성경해석방법은 주석에서나, 기독교 강요에서나 동일하다고 본다. 위에 인용한 부분 이외에도 『기독교강요』의 여러 곳에서 칼빈은 간결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3) Institutes, Ixiv.4, "Therefore, bidding farewell to that foolish wisdom, let us examine in the simple teaching of Scripture that Lord would have us know of his angels."

한만큼은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취한 방식은, 그러나 짧게 압축 요약하기 보다는 부서(M. Bucer)의 로마서 주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긴 주석방법이었다. 부서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길게 인용하여 너무나 복잡하게 늘어놓았던 것이다.

칼빈의 주석방법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짧아서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서 내용의 핵심을 놓치기 쉬운 방법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한 균형잡힌 안목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그가 창안해 낸 것은 아니고, 당대 휴머니즘의 최고봉이던 에라스무스의 글 속에서 약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보하텍(Bohatec)교수가 자신의 기념비적 연구인 『부데와 칼빈』 "Bude und Calvin"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많은 부분은 버렸다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sup>25)</sup> 당시의 수사학과 문장론의 오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칼빈이었기에 오히려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성경 저자의 확실한 의도만을 발견코자 노력하였다. 시세로의 문장이 지난 아름다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성, 플라톤의 내적 일체성을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채용한 흔적은 없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이란 노인이나 아이들도 읽어서 은혜받고 이해하는 말씀이다. 해석자가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것이 아니요, 간단 명료하게 의미를 제시해야

24)Richard C.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1987): 153~165.

25)T. F. Torrance, *The Hermeneutics of John Calvin* (Edinburgh: Scottish Academia Press, 1988).

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으로만 읽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6)</sup>

### 제 6 장 진술의 방식 : 중간의 길(Via Media)

칼빈의 신학적인 진술방식에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나, 마틴 루터, 혹은 당시의 신령주의자들의 방식과는 다른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칼빈이 자신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논증 방식이라고 본다. "대립" 혹은 "역설" (paradox)라고 불릴 수 있는 수사학적 방법이 자주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오고 있다. 1922년 바우케 박사의 저술, 『칼빈 신학의 문제점』(*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에서 이 두개의 상이한 내용의 개진이 반복되는 구조가 처음으로 지적되었고, 가녹지 교수의 연구에서도 역시 칼빈사상의 변증법적 구조가 거론되었다.<sup>27)</sup> 드디어, 1978년 세계 칼빈 학회가 암스텔담에서 열렸을때, 배틀즈 박사가 자신의 독특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중庸의 길을 모색하는 방식"(antithetical structure)을 발표하므로서 이런 구조들이 칼빈의 신학전개 분석에 타당하다는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다.<sup>28)</sup>

26)Calvin, *Commentary on Genesis 48:15, John 5:39*.

27)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Philadelphia : Westminster, 1987), ch. 18.

28)F. L. Battles, "Calculus Fidei," in *Calvinus Ecclesiae Doctor*, ed. W. H. Neuser(Kampen : J. H. Kok, 1978), pp. 85~110.

버클리 대학의 바우스마 박사도 역설과 대립구조가 칼빈의 글 속에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에이레 교수는 칼빈의 신학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변화무쌍한 인간과 피조된 세계를 초월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서로 대립시킴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조직적으로 양립시키고 있다”고 보았다.<sup>30)</sup>

최근에 리드 교수도 역시 같은 견해를 주장하였다. “칼빈은 두 단 사이에 서있다. … 자연신론과 범신론 사이에서, 칼빈은 자신의 성경관에 기초하여 중간의 길에 위치하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칼빈의 신학 진술의 방식이 두 극단을 다루고 있고, 서로 반대되는 대립을 양립시키는 문장의 수사적 형식을 곧잘 취하고 있음을 알게된다.<sup>32)</sup>

29) William J. Bouwsma 교수는 칼빈이 역설(paradox)를 받아들여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의 긴장 관계로 설명하려 했다고 본다.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230.

30) Carlos M. N. Eire, *War Against the Idol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97: “Calvin systematically juxtaposed the divine and the human, contrasted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and placed the transcendent and omnipotent *solus* of God above the contingent multiple of man and the created world.”

31) W. Stanford Reid, “Calvin’s View of Natural Science,” in *In Honor of John Calvin*, ed. E. J. Furcha(Montreal : McGill University, 1987), p.238.

32) 다음의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주석들은 칼빈이 이런 역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일례이다.

Calvin, *Comm. on 1 Cor. 2:7, Romans, 1:21*.

“따라서 이것은 확신하건데,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우심들은 육신에게는 역설적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될 것은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이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와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

## 6.1. 중간의 길(Middle Way)

칼빈은 서로 다른 두 극단, 대부분의 경우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요, 다른 하나는 재세례파인데, 이들을 대조시켜서 양쪽의 모순과 비성경적인 잘못된 점을 개진해나간다. 바른 성경적 신학은 이 양극단을 배제시키고 그 중앙에서 서서 양자의 넘침과 모자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베틀즈 박사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과 당대의 급진주의자들(재세례파들, 방종파들, 신령주의자들)에 대한 거부이다. 이 양자의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middle way)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변증가들이 자신의 전술이야말로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정도라고 말하겠지만, 칼빈의 모든 글 속에는 이 근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정말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정도에 위치한 성경적인 진술을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33) F. L. Battles, *Calculus Fidei: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Grand Rapids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78), p. 2: “There is Calvin’s a single principle, but it is expressed in many ways: every fundamental notion of his thought is defined in a field tension- a middle between false extremes.” 이 책은 아직 공식으로 출판되지 않고, 대학원 강의를 위해 만든 교재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책에는 많은 도표들을 통해서 칼빈이 로마 카톨릭과 신령주의자들의 극단을 피하고 찾아간 “중간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베틀즈 박사에 의하면, 이런 방식은 에라스무스, 즈윙글리, 루터 등에 의해 사용된 변증의 방법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칼빈이 방법론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해아래 새것이 없는 까닭에 역사

칼빈에게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 단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의 사상 속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개념은 양 극단의 대립이라는 현장의 긴장 속에서 중간의 길로 규정된다.

칼빈이 직면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규정하고 바른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은 다음의 도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sup>34)</sup>

도표 1

신령주의자들	칼빈	로마 카톨릭
(재세례파, 자유방종파)	중간의 길	Via Media

위와 같은 방식, 즉 두 극단을 피하고, 두 잘못된 거짓들을 사이에 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 중간을 취하는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다. 칼빈이 이런 신학의 전개방식이요, 수사학적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논리의 기본이 되는 인식론적인 방법론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칼빈은 양 극단을 피하되 너무 지나쳐서 넘치지도 아니하고, 너무 모자라서 부족하지도 않는 방식을 최선의 덕으로 여겼다. 칼빈은 로

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칼빈이 이를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힌트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 F. Torrance, "The Hermeneutics of Erasmus,"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Anne McKee & B. G. Armstrong (Louisville : Westminster, 1989), pp.49~76.

34) Battles, *Calculus Fidei*, p.20.

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부족하며, 모자란다고 믿었다. 기독교의 복음을 당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르본느 대학의 신학부에 대한 그의 거부감이 깊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격한 혁명주의자들, 열광주의와 신령주의에 빠져서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던 재세례파들도 배척하였다. 이는 넘어서야 할 한계를 마음대로 치나쳐버린 급진주의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적인 신학자였고, 이를 진술하면서 철학, 논리학, 수사학을 사용하되, 즉 모든 인간이 개발한 조직적인 체제를 동원하여 구원역사를 단순하게 경험하도록 펼쳐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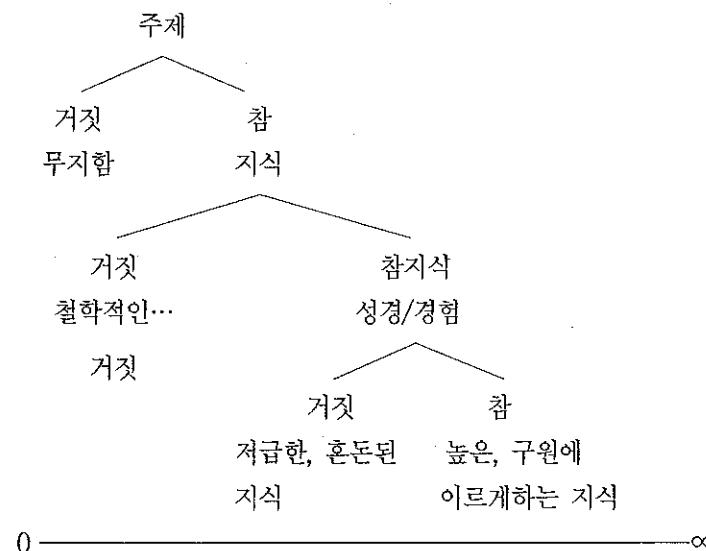
## 6.2. 참된 것과 거짓 교훈과의 대조 (antitheses)

역시 배틀즈 박사의 분석에서 칼빈의 방법론적 구조는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밝혀 나가는 방식이 특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독교강요 최종판 (1559)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하에서 보여주는 전개 방식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당시의 방법론으로는 놀랍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석의 전개과정이었다.

참된 원리와 거짓 원리를 훌륭하게 대립시켜 놓음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잘못된 거짓이 숨어있는 가를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른 사상을 성경에 재조명하여 보는 것이다.

도표 235)



거짓된 입장은 부정에서(0) 출발하고 있으나, 참된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대( $\infty$ )를 향하여 치닫는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 6.3. 양극 사이의 변증법 (bipolarity)

이는 두개의 양극단 사이를 바라보면서 변증법을 사용하여 양쪽 끝의 오류를 피하고 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근본

35) Battles, *Calculus Fidei*, p. 20.

적인 변증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한다. 카톨릭 신학자로서 칼빈 연구의 일가를 이룬 가녹지 (Alexandre Ganoczy)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양극의 관계가 매우 근본적으로 숨겨진 구조라고 한다.<sup>36)</sup>

칼빈의 신학진술 방법속에는 양극성이 숨어있다는 것은 앞서 배틀즈 박사의 연구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내용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은 중간의 길을 찾아가는 궁정적인 논리전개가 아니다. 도리어 부정으로 생각하여 나가는 방식이기에 내적 이원론(inner dualism)을 노정시키는 전술행동이다.<sup>37)</sup>

특히 처음으로 신학을 접한 일반 성도들이 이런 변증적인 전개방식을 읽어가다보면 매우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칼빈의 해석 방법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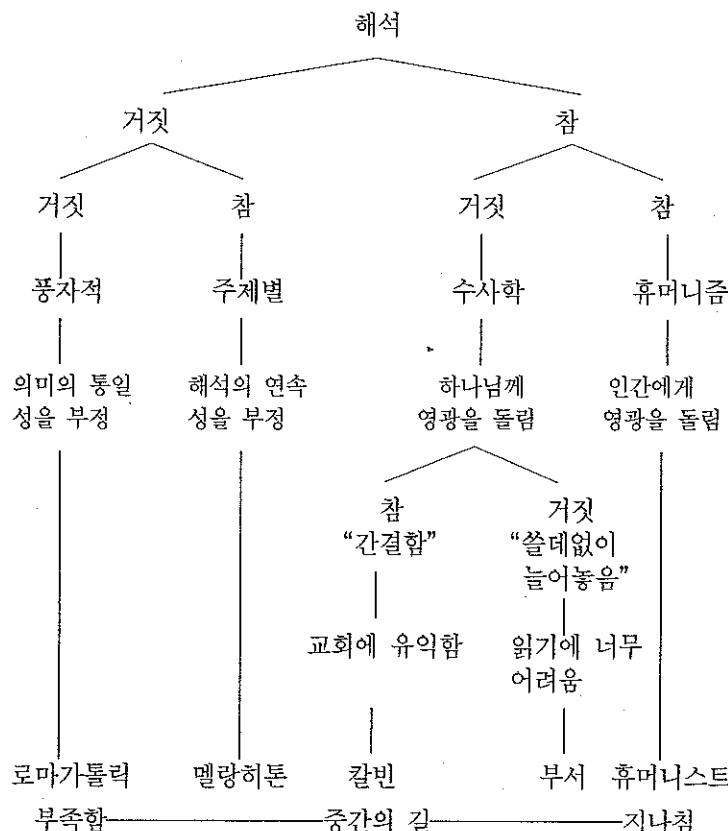
도표 338)

### 해석의 방법들

36)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 D. Foxgrov and W.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p. 186.

37) Ganoczy, *The Young Calvin*, p. 186, "We can perceive that the dialectical structure of his thought was not simply limited to purely technical matters but was constitutive of a system... A profound bipolarity, a true inner dualism marks Calvin's thinking from the time of the 1536 Institutes."

38)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p. 163.



## 제 7 장 하나님과 인간과의 현저한 구분

칼빈 신학의 구조적 틀 중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기본개념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런 사상은 칼빈이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요, 그가 창안해 낸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 한 예로,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깊이 깨달은 모세의 시를 보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 바되어 마르나이다.<sup>39)</sup>

칼빈의 시편 90편 주석을 보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에 속하는 영원성 뿐만이 아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성리를 말하는 것이다. …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과 확고 불변하심은 세상의 창조때까지  
이해되어지지 못했었다. 왜냐면 아직 이에 대해서 눈으로 목  
격한 증거들이 없는 것이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갖고있는 이해 수준으로 측정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땅을 넘어서,  
특히 하늘 그것이라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야만한다.<sup>40)</sup>

39) 시 90편 2~6절.

40) Calvin, *Commentary on Psalm*, 90:2. "Thus the everlast-

우리는 고대 교부들의 영구한 사상과 전통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라는 주제가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sup>41)</sup>

물론 칼빈은 당대의 학문 경향이었던 초대 교부들의 신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 그가 많은 영향을 입은 어거스틴, 카바도기안 신학자들, 그리고 크리소스톰 등에게서 찾았던 것 같다.

다만 칼빈이 다시 한번 신학의 주요 항목으로 채택하여 좀더 체계 있게 정리하였다는데 그의 공헌이 있다.

### 7.1. 무로부터의 창조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분명한 어조로 밝혀주고 있다. 칼빈은 창조의 바른 이해를 무로부터의 창조에 두고 있다. “창조의 참된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 (nothing)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창조는 주입이 아니요, 본질의 시작인데 이는 무로부터

tingness of which Moses speaks is to be referred not only to the essence of God, but also to his providence, by which he governs the world... This eternal and unchangeable stedfastness of God could not be perceived prior to the creation of the world, since there were as yet no eyes to be witnesses of it. ... we mistake if we measure God by our own understanding; and that we must mount above the earth, yea, even above heaven itself, whenever we think upon him.”

41) *Calvin's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es*, vol. 1, (Edinburgh :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3~1855 : Reprinted, Grand Rapids : Eerdmans, 1989), p.59, “Argument.”

이루어졌다.”<sup>42)</sup>

칼빈은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 즉 창조하였다 (created)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모세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는 “형틀을 만들었다거나 혹은 외형을 갖추었다” (to frame or form)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로부터 만들어졌다 (made out of nothing)는 점이다.

### 7.2. 존재론적 구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로서 관계하에 놓였다는 사실을 매우게 된다. 여기서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Him)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점을 중요시 여긴다. 우리 인간 자신은 피조물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점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임으로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르다”(ontological difference)는 것이다.<sup>43)</sup>

칼빈은 이런 근본적인 구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참된 지식을 소유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지식인이 된다. (잠언 1:7)

인간들 자신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창조의 상태로 놓여있음을 깊이 숙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시는가를 생각해야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42) J. Calvin, *Commentary on Genesis*, 1:2, 1:21.

43) Richard C.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p.192.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들 스스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한다.<sup>44)</sup>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임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해야 한다. 칼빈은 이사야 55장 8절의 주석에서 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향과 인간의 방향이 서로 다른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7.3. 우주의 왕이요 만물의 지배자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기본개념은 앞서 지적한 창조주라는 개념 이외에도 피조물의 세계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고 계신 분이며,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sup>45)</sup>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 *theatrum gloriae Dei*라는 라틴어 명구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sup>46)</sup>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아니라, 세

44)Inst., II.ii.1.

45)G. Brilleburgh Wurth, “Calvin and the Kingdom of God,” in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Grand Rapids : Baker, 1959), p.114, “by the virtue of its creation, the world is adapted for the kingdom of God.”

46)Klaas Runia, “Reich Gottes und Gesellschaft,” in *Das Himmelreich hat schon begonnen*, Hrsg. Klaas Runia und John R. W. Stott(Wuppertal : R. Brockhaus Verlag, 1977), p.61, “Die Welt, als

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움직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기초되었고, 행동하는 힘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왕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인간들과 자연들이 포함되어있다. 시시한 자연의 일부분까지도, 풀 한포기, 순식간의 시간마저도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를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칼빈은 1544년에 이 세상 통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소위 “신령주의자들로 불리우는 방종파들 및 환상주의자들과 광포한 이단에 반대하며”(Against the Fantastic and Furious Sect of the Libertines who are called “Spirituals”) 를 폴렸다.<sup>47)</sup>

칼빈은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대해 우주적인 섭리(une opération universelle)를 하면서 조건들과 적정성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심을 설명한다.

칼빈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일반 섭리, (2) 특정한 섭리 또는 일반 은총 (3) 특별 섭리 혹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 등이다.<sup>48)</sup>

von Gott geschaffen, war dazu bestimmt, >>theatrum gloriae Dei<< zu sein, durch die Sunde aber fiel sie von Gott ab.”

47)이 책의 제 14장은 매우 긴 제목(Oh How We ought to understand the Providence of God by which He does everything, and How the Libertines confound it all when speaking it. The first consequence of the preceding article)을 갖고 있으며 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다루고 있다. 『기독교강요』(II.xvi.17)에서도 같은 주제가 언급되어있다.

48)Etienne de Peyer, “Calvin’s Doctrine of Providence,” *The Evangelical Quarterly*, X (1938) : 37. Mary Potter Engel, *John*

### 7.3.1. 일반섭리(general Providence)

일반섭리는 가장 보편적인 섭리이다. “이런 인도하심은 우리가 통상 자연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sup>49)</sup> 일반섭리는 인간 본성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런 우주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인식되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sup>50)</sup>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게으른 관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자신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한 순간의 창조주가 아니요,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다.”<sup>51)</sup>

### 7.3.2. 특수한 섭리 혹은 일반은총(particular Providence or common grace)

특수한 섭리는 자연의 효용성을 지배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Calvin's Perspectival Anthropology*(Atlanta : Scholars Press, 1988), p.207.

49) John Calv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 Benjamin Wirt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2), p. 243.

50) Charles B. Partee, “Calvin on Universal and Particular Providence,” in his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E. J. Brill, 1977), pp. 126~7.

51)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 J. K. S. Reid(London : James Clark, 1961), p.162.

의 특정한 목적은 일반인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함께 경험한다. 단지 이는 일상적인 자연 현상을 넘어서서 친히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집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작동시키고 계신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따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번영과 빙곤, 비와 바람, 안개와 청명한 날씨, 풍요와 기근, 전쟁과 평화 등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이다.

### 7.3.3. 특별 섭리 혹은 구원하시는 은총(special Providence or saving grace)

특별섭리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어지며, 자연은 창조질서가 회복되는 요소를 갖게 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혜택을 받도록 하심에 주목하고 있다. 성령님의 내적 작용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님 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진다.

### 7.4. 인간 : 부패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탁월한 존재이다. 칼빈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높이 드러내는데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칼빈이 비교적 초기부터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글은 “올리베텁의 프랑스어 신약성경의 서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인간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모든 만물의 조물주로서, 자신의 창조물 속에 이미 자신을 드리내심과 인간을 자신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지으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일은 경탄할만한 일이 다.

인간은 단 하나의 뛰어난 존재로 주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짓으셨기 때문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을 본다. 더우기, 인간은 그가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뿐 하였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겸손하게 복종하기를 바랐더라면, 그의 은혜로우심과 함께 하나님을 높였더라면, 인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선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높을 곳으로 향하고, 오직 한분만을 영화롭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친양이 돌려지게 했더라면 ... 52)

인간의 창조시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sup>53)</sup> 비록

52) *Calvin's Commentaries*, tr. & ed.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8), "Preface to Olivetan's New Testament," p.58: "God the Creator, the most perfect and excellent Maker of all things Who had already shown himself more than admirable in their creation, made man as his masterpiece, to surpass all other creatures".

53) *Inst.*, I.xv.3.

신적인 형상의 일차적인 좌소가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것의 능력들 속에 자리잡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 나타나 있다.

칼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이성과 의지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역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기능들이 너무 나도 왜곡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끊임 없는 무질서와 경쟁이 위험스럽게 도사리고 있다."<sup>54)</sup> 심성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통해 이지러지고, 어두워져서 거의 없어질 정도로 소멸되어 버렸다.

칼빈은 부패한 인간의 심령이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로 인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완벽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sup>55)</sup>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죄가 마음에 남아있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의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재세례파에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마치 순결한 상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sup>56)</sup> 칼빈

54) *Inst.*, III.iii.12. "... all desires by which man is by nature affected are so completely condemned—although they have been bestowed by God himself, the author of nature."

55) *Inst.*, III.iii.13. 여기서 칼빈은 아거스틴의 교리적 맥락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Against Two Letters of the Pelagians)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육체 속에도 계속 부패한 심성이 남아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56) *Inst.*, III.iii.14. 칼빈은 재세례파들이 순결한 상태를 회복하였다고 주

은 거듭난 성도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한 사람의 죄인이며,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인간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sup>57)</sup>

이상에서 칼빈의 신학에 담겨있는 두 가지 특성을 지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갖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omnipotence)하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을 역동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칼빈은 자연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자율주의적인 이해를 거절하고 있다. 자연을 마치 거대한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기계적, 자연과학적 자연관을 거부하고 있다. 마치 가능성성이 현실성으로 나타나듯이, 자기 내부의 자연법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잠재적인 것이 점차 밖으로 풀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sup>58)</sup>

장한 다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정당화하던 반율법주의(Antinomianism)에 빠진 것을 보고 괴물과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을 왜곡하고 속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주어져서 이를 통해서 뒤틀린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he has been given to us for sanctification in order that he may bring us, purged of uncleanness and defilement, into obedience to God’s righteousness.”

57) 이에 대하여는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 Lutterworth, 1949), pp.45~80 을 참고하여 볼 것.

58) Inst. I.xvi.2, “And truly God claims, and would have us grant him, omnipotence—not the empty, idle and almost unconscious sort that the Sophists imagine, but a watchful, effective, active sort, engaged in ceaseless activity. Not indeed, an omnipotence that is only a general principle of confused motion, as if he were to command a river to flow through its once-appointed channels, but

칼빈은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요, 지금 지배자요 통치자로서 섭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 결 론

칼빈 신학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로는, 신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성경 말씀의 해석을 돋는데 있다. 신학자의 의무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리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의문을 던져보고, 자신의 사상이나 전제에 의한 교리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성경의 계시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에 맞추어서 분명히 밝혀주는 일이다.

칼빈의 적용이론(accommodation)이나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되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그의 비평적인 진술방식에서도 무엇이 참이며 거짓인가를 드러내 비교해주면서(대칭구조, 두 개의 극단, 변증법 등) 정도를 찾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신학의 논쟁원리는 로마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칼빈은 로마서 1장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거나 추정된다. 여기서 바울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 비교를

---

one that is directed toward individual and particular motions.”

보여준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벼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3). 우상에 관하여 유대적인 개념으로 비교하였는데, 두 단어가 매우 흡사하다. 우상은 “엘리립”(מִלְלָ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로힘”(מִלְהָא)이다. 이 두 히브리 말의 비슷함은 마치 독일어 “우상”(Göetye)와 “하나님”(Gott)의 차이점과 유사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우상숭배를 훨씬 뛰어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되었다. 특히 구약성경의 우상숭배를 당대에 적용하여, 로마 교황청의 우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사고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은가를 밝히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부적합한 것을 떨어내려는 분석작업은 가히 감탄할 만한 방법론이었다. 칼빈이 추구한 신학체계는 성경이 밝히 말해주는 하나님과 계시를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주려는데 있었다.

물론 칼빈도 한 시대의 아들이요, 그의 신학도 16세기라는 격동의 역사적인 한계 상황 내에서 있었다. 그가 당면한 시대의 문제의식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요, 모든 부분에 걸쳐서 완전할 수는 없다.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에 입각하여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누구의 신학이라고해서 교조적으로 매달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칼빈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 나면, 신학에 대한 궁정적인 자세를 갖게되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의 이성적이고, 환원론적인 신학을 벗어나서 성경에 입각한 신학을 세움으로서 참된 진리의 정수를 모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신학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발견하려는 새로운 안목과 구조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펼친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게됨을 깨우쳐 준다. 경험과 시대의 상황이 주는 안목만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며, 이성적인 진술만으로 특정한 신학을 조립해내는

오늘의 신학방법론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준다.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과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하여준다. 칼빈에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이해에 전심전력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